

하늘 청소부

하늘 청소부

저 앞선 이가 남긴 시커먼 발자국
또 뒤 따르는 이가 물들인 회색빛의 하늘
그 하늘을 닦는 이는 어디에 있을까

내가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는 하늘은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다
보기엔 뒤척임조차 없는 그 광활한 하늘에는,
저 머나먼 하늘 속에는,
내 별들이 산다

맑고 깨끗하게 살라던 구름들의 말에
내딛는 발걸음에는 구름이 한 점, 한 점 소복이 내려앉고
바라보는 하늘에는 정의의 맹세로 가득찬 별들이 빛을 낸다

오로지 푸른 빛의 하늘이 우리를 비추듯
새파란 마음들이 나를 떠미는 이곳
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은 나를 기다린다

점차 제 색을 찾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
나는 다시 한 번 발을 내딛는다
저 머나먼 하늘 속에는 내 정의들이 산다